

경찰서 체험 수기

이 소 민*

우연히 이번 경찰체험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되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마냥 설레는 마음이었고,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었다.

조금은 무뚝뚝한 이미지를 풍기시는 우리 성촌 파출소장님을 처음 뵈었던 것은 발대식 날 이었다. 소장님의 뒤를 따라 처음 내가 배치된 성촌 파출소로 가는 차안에서 내 얼굴은 비록 웃고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가슴이 서서히 경직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전체적인 경찰 활동을 설명해주는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함부로 도전해볼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영부영했다가는 왠지 경찰 분들에게 짐만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파출소 안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내가 느

꼈던 그곳의 첫인상은 그 동안 생각해온 그것과는 상당히 달랐다. 파출소에 좀처럼 가볼 기회가 없었던 나는, 그곳은 옷을 뒤집어쓰고 수갑을 찬 범죄자들이 득실거리고 경찰관들은 조서를 작성하며 쉴새없이 움직이는 곳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경찰관들이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인간미 넘치는 모습이 었다. 우리를 보며 반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던 너무 좋으신 그분들의 웃는 모습이 바로 어제 일처럼 아직도 내 가슴속에 생생히 새겨져 있다. 그분들의 그런 웃음들 덕분에 그제서야 나는 잔뜩 긴장했던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허둥대는 우리에게 사소한 것부터 이것저것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경찰 분들과 소장님의 지시 아래 우리는 어느덧 조금씩 그곳을 익혀가고

* 천안대학교 법정학부 경찰행정학과 1학년(학생)

있었다.

우리가 처음 했던 일은 일단 조를 편성하여 순찰을 도는 일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 나오는 일이지만 경찰차에 처음 오를 때에는 너무 떨려서 머뭇거렸었다. 내 인생에 경찰차를 타 볼 기회가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그렇게 떨리는 가슴을 간신히 쓸어 내리면서 경찰차에 올라 순찰을 돌 때는 마냥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었다. 그래서 함께 순찰을 돌게 된 경찰아저씨들에게 이것저것 많은 질문을 했는데도 귀찮은 기색 하나 없이 친절히 대답해 주신 아저씨들이 너무 감사했다. 그분들로부터 우리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경찰활동에 관한 내용이나 관련 법규들 뿐 아니라 그 동안 경찰생활을 해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범죄자들과 사건이야기, 경찰서에서의 생활환경 이야기 등 순찰을 도는 내내 우리는 경험담을 들으며 놀라서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멀게만 느껴지던 경찰관들도 연정이 묻어나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대한민국 시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범죄자들 앞에서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무섭게 돌변하지만 말이다. 경찰관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던 것은 처음이라 조금 어려운 마

음이 없진 않았지만 대한민국 경찰을 다른 시각으로도 보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

순찰을 도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냥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상쩍은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눈에 떨 때마다 경찰관들은 일일이 알아보고 확인을 했다. 경찰관들은 잠시도 시선을 돌리지 않고 사방을 둘러보며 사람들의 행동 하나 하나에 주시했다.

순찰 도는 일 외에도 내근이 있었다. 파출소 안에서 경찰관들의 일들을 도와주고 지켜보는 일이었는데 말만 들으면 아주 협소한 일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이것도 생각보다 가슴에 와 닿는 것이 많았다. 파출소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파출소를 거치는 가지각색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파출소에 계속 전화해서 욕을 해 대시는 아주머니 뿐 아니라 술 주정을 하시는 아저씨, 파출소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잡혀온 아저씨,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돈을 떼어먹었다며 하소연하던 아저씨, 누군가 자신의 차 앞 유리를 돌려 내리찍어 어이없어 하는 부부 등 그 짧은 시간에 경찰관들은 수많은 민원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었다. ‘경찰은 참으로 힘든 직업이구나…….’ 하는 것을 가장 많이 느낀 순간이었다.

“우리가 맨날 이러면서 육을 먹는다. 너희들은 정말 경찰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힘든 직업을 하려고 하니.. 하하.. 내가 다시 너희 나이로 돌아간다면 나는 절대 경찰 안 할꺼야..”

정신없이 일을 처리하고 한숨 돌리는 그 잠깐의 여유시간에 우리에게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경찰관 아저씨들의 말에는 물론 진심도 있었겠지만 자신들이 하는 일에 많은 사명감을 안고 있는 것 같았다. 경찰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그 직업만의 보람들이 있기에 그 분들이 그런 힘든 일 속에서도 곳곳이 견딜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한다.

비록 파출소에 근무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절도죄로 걸려온 한 아이였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께서 경찰들 앞에서 서럽게 우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 아이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는 도중 비록 어린 나이지만 소년원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얼핏 들었다. 그 아이의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았다. 어느 곳에 전화를 걸어 오늘은 청소하러 가지 못하겠으니 죄송하다는 말을 하셨다. 순간적으로 형언할 수 없는 연민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한없이 냉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찰서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우리 뿐 아니라 경찰 아저씨들도 가족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오죽 하

실까..... 어쩔 수 없이 냉정하게 등을 돌려야만 하는 그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웠다. 경찰서에서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사건들 속에는 그 어느 누구 하나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이야기, 애뜻한 사연 하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오히려 자신들을 더욱 객관적이고 냉정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았다.

경찰이 하는 임무 중 소방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나는 의경들과 경찰관 아저씨들과 함께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장님을 비롯한 경찰관과 의경들이 한 곳으로 모두 뛰어갔다. 차를 이용하지 않고 뛰어가는 것을 보면 그곳에서 그다지 먼 거리에 있지 않은 곳에서 사건이 터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비롯한 우리 봉사자들은 모두 그곳으로 뛰어갔다. 어느 상가지하에서 희미하게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곳을 둘러싸고 경찰들의 차량 제지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길로 소방차가 연이어 달려왔다. 얼마 후 다행히 불길의 쉽게 잡힌 듯 소장님께서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시며 현장에서 나오셨고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주위에서 안절부절 하던 사람들 또한 그제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드디어 소방차들도 하나 둘 씩 돌아가고 다시 원래의 대형으로 돌아가 다시 각자의 임무를 다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것

이 작은 사건 하나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가히 충격이었다.

내가 경찰 체험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음주단속 이었다. 나에게 또 다시 경찰과 함께 음주단속 현장을 지켜 볼 수 있는 기회가 올까? 물론 음주단속을 하는 것은 경찰아저씨들과 의경들이고 우리는 그 옆에서 서있기만 했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경험을 해 본 것이라 모든 것이 신기했다. 그러나 물론 음주단속을 하면서 마냥 신나고 좋았던 것은 아니다. 몇 시간 동안 서서 있는 것은 정말 지옥훈련이 따로 없었고, 간간히 있던 음주차량들이나 도주차량들은 정말 우리를 더욱 힘들게 했다.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지……. 그 노고를 감히 조금이나마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처럼 경찰서가 나쁜 사람들을 잡아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꼭 한번 이런 기회를 가져 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적어도 나에게 만큼은 이제 그 곳은 다른 곳처럼 사람냄새가 나는 곳.. 인간의 정이 남아있는 곳으로 기억되어 남게 될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경찰 아저씨들께 너무 많은 짐이 된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나중에 술 한잔하자며 자상하게 웃어주셨던 그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다시 꼭 그곳에 들러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싶다. 그 분들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우리와

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 해 주셨으면 좋겠다. 겨우 몇 주 있어본 것 가지고 경찰들의 생활을 입에 올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도 우스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번 체험 내내 정말 경찰관이 된 기분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비록 짧은 시간이었다고 해도 얻은 것은 그 누구보다도 무한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경찰아저씨들과 함께 근무해 보면서 느껴온 것들 중 꼭 좋은 점만 눈에 띈 것은 아니었다. 개선되어야 할 점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경찰들이 하는 일에는 꼭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는데 그에 따른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순찰 도는 중 어떤 경찰아저씨께 들은 기억이 난다. 우리나라 시민들이 경찰을 함부로 대하고 욕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경찰의 권한이 너무도 많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또한 시민의식도 많이 빼뺏어져 있는 것 같다. 어느 외국 영화를 보면 경찰관들이 범인에게 총을 들이대고 “손들어! 뒤로돌아!” 하면 그에 따라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르다고 한다. 막상 총을 들이대고 “손들어! 뒤로돌아!” 하면 어디 한번 쏘보라며 달려든다고 하는데 정말 총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라 난감하다고 한다. 음주 단속을 할 때에도 굉장히 귀찮아하며 어떤 시민은 경찰관에게 얼굴을 붉히고 욕설을

내뺐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정말 어른답지 않은 그릇된 행동을 많이 보였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욕을 해대는 경찰들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그 누구도 평화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없게 될 지도 모른다. 우리 주위에서 항상 있어주시는 그분들의 힘찬 기합 소리가 훗날 살기 좋은 우리 나라를 만드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와 더불어 시민들도 경찰들의 올바른 지시대로 잘 행동해 준다면 우리 나라는 '민주 시민이 사는 나라'라는 애칭을 얻게 될 것이다.

경찰체험을 한 이후부터 나의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건널목을 건널 때에도 꼭 신호를 지키게 되고 안전벨트를 안 매거나 과속을 하는 차량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혀를 내두르게 된다. 마치 정말 경찰이나 된 듯이…….

너무 짧은 시간에 깊은 정이 들어버린 것 같아서 막상 떠날 땐 너무 섭섭할 것 같아

서 걱정이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성춘 파출소와의 인연이 마지막이지만 내가 나름대로 학업에 열중하고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 묻혀 살아가고 있을 그 시간에도 그 분들은 변함없이 우리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일하고 계시겠지…….

우리가 '대학생 경찰 봉사대'라는 이름이 가슴에 새겨진 조끼를 입고 지낸 한달 여일의 시간은 너무도 짧았다. 그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이 내 머릿속, 가슴속에 커다란 울림으로 하나의 조각처럼 새겨졌다. 아직은 너무도 작은 우리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며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그분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광활한 평야에 '경찰'이라는 꿈을 지닌 작은 씨앗을 심어주셨다. 그곳에서의 배우고 느낀 일들과, 너무 힘든 일이라며 절대 경찰은 하지 말라고 농담을 하시던 그 분들의 땀 섞인 풋풋한 얼굴은 내가 늙어서 누군가에게 내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꺼낸다면 빠짐없이 꼭 기억될 것이다.